

북·중 수교 55주년 관련 동향

1. 개 요

- 북한과 중국은 북·중수교 55돌(10.6)을 계기로 지도자간 축전을 교환 하는 등 동 기념일을 계기로 양측간 친선협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.

2. 주요 동향

- 10.3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상해소년예술단 단장을 접견하고
 - 동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였음.(10.3, 중·평방)
- 10.5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등과 함께

츙키린스(楊錦濤) 중국 국가단, 츙키린 민 국가단, 츙키린기위 원회 주석, 강택민(江澤民)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, 우방 귀(吳邦國) 전인대 상무위원장, 원자바오(溫家寶) 총리 등 중국 지도부에 축전을 보내어

- “조·중 친선은 귀하게 여기고 굳기 반져시키는 거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 부동한 입장”이라면서 “우리는 조·중 친선이 두나라 당과 정부,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계속 확대 강화되라라고 믿는다”고 언급하였음(10.6, 중방).
- 한편, 중국 지도부도 10.5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지도부에 축전을 보내

- “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은 전통적인 중·조 친선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·조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”면서
- “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해 준 중·조 친선협조 관계를 계속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음.(10.6, 중방)
- o 10.6 ‘대를 이어 강화하는 불패의 조·중 친선’제하의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, “피로써 맺어진 조·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공고 발전시켜 나가자”고 주장(10.6, 중통)하였음.
- o 10.6 우둥허(武東和) 북한주재 중국대사는 대사관에서 연회를 개최하였으며, 연회 참가자들은 “조·중 두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의 친선단결”을 강조하였음(10.7, 중방).
 - ※ 동 연회에는 광범기 내각 부총리, 조·중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수학 보건장,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장 위원장 대리, 박경선 당 중앙위 부부장, 이태일 인민무력부 부부장, 김영일 외무성 부상, 이용남 무역상 부상, 조찬구 문화성 부상, 김정식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음.
- o 10.7 백남순 외무상은 우둥허 대사에게 지난 중국 당·정 대표단 방북시(9.10~13) 중국이 표명한 무상원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음(10.8, 중통).
- o 한편, 우둥허 대사는 10.4 ‘대안친선유리공장’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작업을 지원했으며, 10.7 ‘조·중 친선 택암협동농장’에 나가 농민들 일손을 도왔음(10.7, 중방).

3. 분석

○ 북·중 수교 55돌을 전후해

- 북한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을 획득하는 한편,
-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후진타오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까지 승계하는 등 제3세대 지도부에서 제4세대 지도부로 교체되어 가는 가운데

- 양측 지도부는 “노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해 준 조·중 친선협조 관계를 계속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강조한 바, 이는 북·중관계의 지속 발전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임.